

뉴스 & 뉴스

불추위 대복지원장구 자격'

민족화합불교추진위(삼일집행위원장 명진)는 11월 29일 통일부로부터 10번째 대복지원 독자장구 자격을 획득했다.

조계종 '우수봉사자' 포상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은 23일 오전 11시 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우수자원봉사자 포상식'을 거행한다.

새천년 맞이 성각스님법회

성각스님과 달린트 전원주가 함께하는 새천년 열린 세상이 12월 15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에서 PSB 부산방송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주관으로 열렸다.

무량종 27일 정기총회

무량종 중앙총회(회장 해안)는 27일 오후 서울 총무원 회의실에서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한다.

18일 '좋은벗들' 3돌 기념식

(사) 좋은 벗들(이사장 범룡)은 18일 오후3시 정동법당 1층에서 창립총회 및 3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

간병봉사자 45명 배출

불교복지재단대학(학장 해도)은 7일 제2기 간병봉사자과정 졸업식과 복지재해보조사업장 중장식을 거행했다.

올 불교복지 활동 '평년작'

각종단 복지재단 설립 '성과' 잇단 복지관 공공유용 '아쉬움'

올해 불교계 복지를 예년과 비교해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보합세(保合勢)'를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6월 총지종이 조계종 진각종에 이어 세번째로 종단 차원의 복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진각종 복지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NGO)에 가입하고 11월말 네덜·스리랑카에 지부를 설립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각종 전산화 작업이 이뤄진 것도 올 불교복지의 주가들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이 6월 복지정보지원센터를 설치,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비롯해 연꽃마을이 통합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대부분 복지시설이 전산화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상반기부터 이어져 온 강세는 하반기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악재로 인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7월 불거져 나온 서울 자양복지재단과 부산 공학복지재단 관계자의 공공유용사건은 불교계 복지시설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조계종 복지체계 개구부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를 남겼다.

동국대 'BK21' 지원대상에 선정

동국대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불교학과)이 교육부의 고급인력 양성계획인 '두뇌한국(BK)21' 사업 인문·사회분야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대의 이미지 문화 연구인력 양성팀(팀장 정재형)이 선정됐다. 한편 두뇌한국 21 지원대상에 선정된 대학은 동국대를 포함 성균관대 4개, 서울대 3개, 고려대 3개, 이화여대 2개, 서강대 2개, 한양대 1개, 숭실대 1개, 대구대 1개 등 11개 대학 18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인문사회분야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이영덕)가 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동국대는 올해부터 7년간 총 30억6천6백만 원을 지원받아 불교문화사상사 불교와 문화역사, 불교사상사를 연구하게 된다. 또 핵심분야 사업에는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N'세

대의 이미지 문화 연구인력 양성팀(팀장 정재형)이 선정됐다. 한편 두뇌한국 21 지원대상에 선정된 대학은 동국대를 포함 성균관대 4개, 서울대 3개, 고려대 3개, 이화여대 2개, 서강대 2개, 한양대 1개, 숭실대 1개, 대구대 1개 등 11개 대학 18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23명 재심사 징계경감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원서)는 6일 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3명에 대한 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재심청구자 대부분 절반 이하로 경감됐다. 재심사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호-면직 △천고-공권정지 5월 △해인, 정인, 원경, 자유, 동광, 종일-공권정지 1년 △현일, 효종-공권정지 1년6월 △해충, 각진-공권정지 2년 △정관-공권정지 2년6월 △지원, 대일, 신해 활현-공권정지 3년 △활종-공권정지 4년 △부동, 성조, 무영-공권정지 5년 △보연-공권정지 10년 △정빈-제적 정성운 기자

교계 송년행사 형식탈피 '뜻있게'

'3천배 참회기도' '노인잔치' '주민과 함께' 등 다채

교계 송년문화가 바뀌고 있다. 만찬형식의 예년과는 달리 각종 문화행사 및 독특한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새로운 송년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이달 31일 대학 4층 큰법당에서 '송년, 3천배 특별 참회기도'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절에서 새로운 송년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익산 관음사(주지 지장)도 지난 달 15일 '108참회 백일기도'를 입재하고 자신이 지은 잘못된 행위 108가지를 적은 참회문을 작성, 스님과 신도 등 대중모두가 새벽·사시·저녁예불에 맞춰 참회기도를 봉행하면서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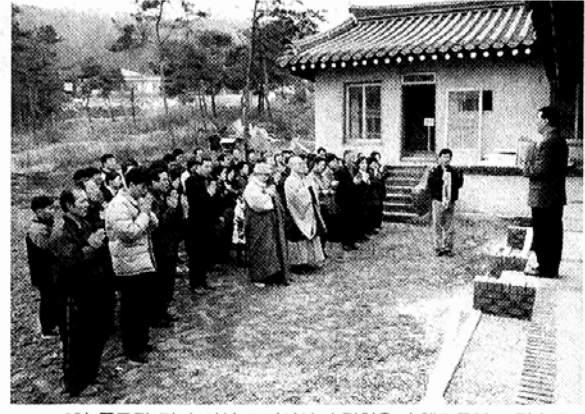
교계 복지관들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송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은평 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은빛 한마당 잔치'를 펼치고 생활보호대상 노인 2쌍의 합동결혼식과 장기자랑 형식의 '은빛 예술제' 등

으로 송년회를 대신하며,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17일 밤 지역 중·고교 음악 동아리 초청 음악회를 개최한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 역시 23일 아남 프라자 대연회에서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음악동아리 및 음악인 초청공연을 개최하며,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산)은 17일 직업적응훈련실 원생들의 부모를 초청해 정신지체인인원 원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제공하는 독특한 송년회를 갖는다.

이밖에도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도 20일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들의 연극·춤 등의 공연으로 송년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오종합사회복지관도 15일 노인 예술단 발대식을 겸한 축하공연으로 송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의장 석담·진옥)는 송년회 대신 그동안 전국 사찰에서 모은 결식아동돕기 성금 1천5백만원의 서울·경기지역 불우아동 100명에게 지원하는 '불교어린이의 만남' 행사를 1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갖는다. 또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회장 이주성)는 24일 광주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제1회 부다가야 청년문화예술제'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과거의 먹고 즐기는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송년문화는 건전한 송년 분위기는 물론 지역교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5일 준공된 경기 안성 도피안사 수광원은 수행공동체 도량으로 수행과 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안성 도피안사 '수광원' 완공

실버타운 형식 수행공동체로 운영

경기도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가 5일 수행공동체 도량인 수광원 준공법회를 가졌다. 수광원은 30명규모의 황토생활실 건물 2동으로, 욕실과 부엌, 거실, 침실 등이 구비된 생활실이 들어서 있다. 노년층부부를 중심으로 한 실버타운 형식의 공동체로 운영될 수광원은 편안한 노후생활과 함께 불자들이 수행생활과 취미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도피안사는 개관과 더불어 노년층 부부들을 위한 알찬 수행프로그램과 도예, 미술, 음악, 원예 등의 문화강좌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피안사는 앞으로 100세대의 부부들이 함께 생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수광원 건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행공동체들을 위해 참선, 열불 등을 중점 지도하고 아침저녁 예불, 산행, 운력, 성지순례 등의 수행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된다. 지난 95년부터 수행공동체 불사를 추진해 온 송암스님은 "4년전 완공한 파라미터수행원과 이번 완공한 수광원 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로터스텔도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다"면서 "도피안사를 전방위적인 불교 수행공동체 도량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0334)676-8700

KCRP 대표단 방북

남·북 종교인평화모임 논의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KCRP) 명예회장 김용은 신부와 변진종 사무처장, 삼소회 대표 해경선님과 임봉교 김지정 교무총장 KCRP 방북대 걸쳐 영주를 관매해 왔다. 정확한 판매수량이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5천여 개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조계종에서 고액의 영주관매로 불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 수 차례 조사를 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할 것을 당부했으나 삼중스님은 영주를 위해 영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삼중스님 교화후원회 '경찰 수사중'

플라스틱을 게르마늄 염주로 속여 고액판매

삼중스님 교화후원회(회장 김동기)가 영주사기 판매와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삼중스님 교화후원회는 삼중스님의 교도소 교화와 관련된 비용 충당을 위해 게르마늄 염주를 판매해 왔으나 영주에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염주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 조사2계는 7일 진상 규명을 위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한편, 후원회원 명단 파악, 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금정경찰서 측은 "아직 조

사중이며 결과가 나와봐야 뭐라 말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삼중스님 교화후원회 김동기 회장은 "지금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삼중스님교화후원회는 98년부터 삼중스님교화기금미련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열어 영주를 판매해 왔으며 부산을 비롯, 전국의 많은 불자들이 교화사업 후원을 위해 영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스님 교화후원회의 영주판매는 삼중스님이 권

희로써 석방에 비준 있는 역할을 해낸 이후 본격화되어 대규모 법회나 각 동단위로 호텔, 음식점 등에서 법회를 열어 수십 차례에 걸쳐 영주를 판매해 왔다. 정확한 판매수량이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5천여 개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조계종에서 고액의 영주관매로 불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 수 차례 조사를 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할 것을 당부했으나 삼중스님은 영주를 위해 영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스님 교화후원회의 영주판매는 삼중스님이 권

World Peace · Ethnic Harmony · Family Contact. New year for the new millennium. Donghae Nakasan Hamae 2000 New Year's Eve Prayer Meeting. Includes details on dates, location, and participants.